

“새로워야 재미있죠.”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이금희(55)와 배우 김의성(56). 오랫동안 방송가와 연기 무대를 누빈 두 베테랑이 최근 나란히 새 도전에 나섰다. 이금희는 카카오투V ‘거침마당’으로 데뷔 32년 만에 예능 세계에 진출했고, 김의성은 29일 종영한 SBS ‘모범택시’를 통해 악역 대신 의로운 캐릭터로 변신했다. 각 분야는 다르지만, 도전의 이유는 단 하나다. 재미있는 인생을 위해!

“처음해보는 예능, 신선함 그 자체”

이금희 카카오투V ‘거침마당’ 고정출연

“소소한 주제토론, 새로운 재미 제의받고 단 5초만에 ‘할래요’ 내 예능 스승은 박명수, 이말년 새로운걸 시작할 준비 늘 OK”

“예능으로는 쌓은 게 없으니 잃을 것도 없죠!”

이금희가 예능프로그램 첫 고정 출연을 결심한 계기이다. 27일 화상으로 만난 그는 “카카오투V ‘거침마당’의 연출자 문상돈 PD에게 출연 제의 전화를 받은 지 단 5초 만에 ‘할래요!’라고 외쳤다”며 웃음을 터뜨렸다. 1998년부터 18년간 진행한 KBS 1TV ‘아침마당’을 패러디했지만, 완전히 새로운 포맷이 마음에 쏙 들었다. ‘가족 단체인자방의 필요성’ ‘회식 때 꼭 없어져야 할 것들’ 등 소소한 주제에 대해 목소리를 높여 토론하는 과정이 “신선함 그 자체”였다.

“그동안 아침 토크쇼 제의는 많이 받

았지만 해봤던 포맷이니 더 새로운 재미를 찾기 힘들 것 같아서 고사해왔죠. 하지만 ‘거침마당’은 처음 해보는 일이었어요. 망설이지 않았죠. 도전이 두렵지도 않았고요.”

‘예능 스승’은 함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방송인 박명수와 웹툰 작가 이말년이다. 눈치 보지 않고 황당무계한 주장을 펼치는 이들을 보며 감탄만 하다가 촬영을 마친 적도 있다.

“제 역할은 개성 강한 두 분 사이에서 중심을 잡는 일이에요. 익숙한 자리이니 어렵지는 않아요. 다만 ‘빨리 배우고 싶다’는 욕심이 갈수록 강해져요. 박명수는 ‘아침마당’을 함께 진행한 이상벽 선배를 보는 기분이에요. 내공이 어마어마하죠. 이말년 작가는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하지?’ 싶을 정도로 웃기고요. ‘내공’과 ‘천재’ 사이에 있는 셈이에요.”

하루가 멀다 하고 변하는 세상에 발 맞추기 위한 노력도 게을리 하지 않았다. ‘거침마당’ 영상에 달린 댓글을 모두 챙겨보고, 2005년부터 숙명여대 미디어학부 겸임교수로 재직하며 가르친 1500여 명의 제자와 일 대 일로 대화를 나눴었다.

“요즘 친구들의 언어 감각을 더욱 가까이에서 느끼기 위해 많이 공부하는 편이에요. 마흔을 넘기고 ‘내가 참 운이 좋다’고 생각해요. 모두가 열심히 하는 사이에서도 제가 계속 일할 수 있었던 건 주변의 도움 덕분이었죠. 그 깨달음을 얻고 나서는 꾸준히 봉사도 하고, 소통에도 관심을 기울이게 됐어요.”

덕분에 지난해 유튜브 계정 ‘마이금희’도 열고, 예능 무대에도 진출하며 “신세계”를 맛보고 있다. 지금까지 그래왔듯, 앞으로도 도전에 한계를 두지 않을 생각이다.

“계획을 가지고 사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오로지 감각과 재미에 의존해 걸어왔죠. 끌리는 게 생기면 내일 당장이라도 새롭게 시작할 준비가 돼 있어요. 그렇게 계속 가다 보면 길이 열리지 않을까요?”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이금희가 데뷔 32년 만에 예능프로그램 진행자로 나섰다. 사진제공 | 카카오투V



“언젠가 배신할거란 댓글, 즐거웠죠”

김의성 ‘모범택시’서 의인 변신

“장성철엔 파스함과 서늘함 공존 색다른 평가를 받은건 기분좋아 아버지 유언이 “재미있게 살라” 85점 정도는 되게 살고 있어요”

‘역대급 악역에 매국노 전분까지...’ 김의성이 그동안 얼마나 강렬한 악역을 소화해왔는지 알 수 있다. 영화 ‘부산행’과 ‘암살’, tvN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 등을 거치면서 대체 불가한 ‘악역 전문’으로 자리매김했다.

“수많은 배우들 사이에서 이름 알리기도 힘든데, 거기다 캐릭터까지 얻었으니 더할 나위 없다”며 만족했던 그에게 변화가 찾아왔다. 사적복수 대행업체 ‘무지개운수’ 대표 장성철로 출연해 15.3%(닐슨코리아)의 시청률을 거둔 ‘모범택시’에서 “악역 아니냐?”라는 의심(?)을 뒤로하고 끝까지 착한 역할로 등장했다. 28일 서울시 강남구의 한 카페에서 만난 김의성은 “그렇게 믿으라

고 했건만”이라며 너털웃음을 지었다.

“방영 내내 ‘저 사람 언제 배신할지 모른다’는 댓글을 보는 게 즐거웠어요. 고착된 악역 이미지를 통해서 드라마를 즐기는 한 방법을 제공해 뿌듯했죠. 따뜻함과 서늘함이 공존하는 이중적인 캐릭터를 잘 표현하고 싶었는데 어느 정도 성공한 것 아닌가 싶어요.”

지난해 개봉한 영화 ‘돌멩이’ 속 신부에 이은 선한 캐릭터다. ‘이미지 변신을 노린 것 아니냐’는 질문에 “그냥 하라니까 하는 거지!”라는 농담 섞인 대답이 돌아왔다.

“연기를 하면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던 적은 없어요. 착한 역할에 ‘어색하다’는 댓글도 종종 달리니 역시 쉬운 건 없다는 생각도 들고요. 다만 캐스팅한 제작진이 저를 충분히 쓸 가치가 있다고 확신해준 것은 고마워요. 배우로서 색다른 평가를 받는 일은 분명히 기쁘니까요. 물론 연기하기에는 악역이 조금 더 재미있긴 해요.”

‘재미’는 연기의 원동력이다. 1999년부터 10여 년간 떠나 있던 영화계에 다시 돌아온 이유도 2010년 무렵 돌아가신 아버지의 “재미있게 살라”는 유언 때문

이었다.

“재미있게 살기’ 영역이 있다면 100점 만점에 85점 정도는 줄 수 있을 만큼 살고 있어요. 무엇보다 배우라는 직업 덕분이지요. 재주 있는 사람들과 함께 재미있게 일하는 세계거든요. 좋은 친구들을 만나 맛있는 음식 먹으며 사는 재미도 쏠쏠하고요.”

SNS를 통해 각종 사회 이슈에 목소리를 내는 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뭘 해도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사람은 있긴 마련이고, 대부분은 관심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저를 둘러싼 편견 중 깨고 싶은 것은 딱히 없어요. 저의 행동으로 비롯된 오해 역시 제가 사회에 녹아있는 모습 중 하나라 생각해요. 타격을 안 받습니다. 마음대로 하세요. 하하하!” 유지혜 기자

29일 종영한 SBS ‘모범택시’에서 의로운 캐릭터를 선보인 김의성은 “고착화된 악역 이미지를 이용해 반전을 쥐 재미있었다”며 웃었다. 사진제공 | 키이스트



‘빈센조’ 송중기, 亞 찍고 유럽 상륙

넷플릭스 통해 프랑스서 공개 유럽에 익숙한 伊파피아 소재 이탈리아어 구사 신선한 충격

배우 송중기의 영역이 더욱 넓어질 전망이다. 아시아권을 넘어 유럽 지역에도 자신의 작품을 알리면서 한류스타로서 무대를 확대할 기회를 마련하고 있다.

30일 OTT 랭킹사이트 플릭스패트를

에 따르면 ‘빈센조’는 일본은 물론 싱가포르, 베트남, 필리핀 등 동남아 대다수 국가에서 넷플릭스 ‘많이 본 콘텐츠’ 1위를 비롯해 상위권에 올라 있다. 이미 아시아권에서 송중기가 얻고 있는 명성을 방증한 셈이다.

이어 송중기는 유럽으로 향하고 있다. 최근 프랑스 등에서 역시 넷플릭스를 통해 ‘빈센조’를 공개하면서 서서히 입소문을 타고 있다.

이날 한국콘텐츠진흥원은 프랑스 엔터



송중기

테인먼트 사이트인 ‘어번 퓨지옹(urban fusion)’의 ‘빈센조’에 대한 소개와 시청 추천글을 인용, “다른 장르의 드라마와 여러 면에서 공통점이 있지만, 이 드라마는 획기적

이다”고 전했다. 누아르와 코미디가 어우러진 독특한 이야기로 시선을 끈다고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유럽 시청자에게도 낯익은 이탈리아 마피아를 소재로 삼은 점

역시 기대감의 요인으로 꼽혔다.

‘어번 퓨지옹’은 무엇보다 이탈리아 마피아 출신 변호사의 이야기가 이탈리아 대사를 통해 유럽 지역에도 소구할 수 있을 것이라 내다봤다. 특히 주연 송중기가 실제로 이탈리아어로 공부해 “완벽한 대사”를 연기함으로써 “신선한 충격을 안겨준다”고 썼다.

이 같은 현지의 시선과 분석은 송중기에 대한 기대감으로도 연결된다. 이미 영화 ‘승리호’를 통해 유럽을 비롯한 서구지역에서 호평을 얻은 데 이어 그와는 또 다른 장르와 캐릭터를 표현하며 인상적인 평가를 남긴 덕분이다.

윤여수 기자 tadada@donga.com

연예

스포츠동아 2021년 5월 31일 월요일 11



방탄소년단

BTS, 전세계 아미와 축제를…

6월2~13일까지 ‘2021 BTS 페스타’ 열어 8주년 맞아 ‘머스트’ 등 다양한 콘텐츠 준비

신곡 ‘버터’의 신기록 행진에 나선 그룹 방탄소년단이 전 세계 팬들에게 특별함을 선물한다. 6월2~13일까지 ‘2021 BTS 페스타’(FESTA)를 열고 팬들과 만난다. ‘BTS 페스타’는 데뷔일인 6월13일을 기념하기 위해 진행하는 팬 이벤트이다.

방탄소년단은 올해 데뷔 8주년을 맞아 ‘오프닝 세레모니’를 시작으로 ‘새롭게 쓰는 2021년 방탄 프로필’, ‘안무 영상’, ‘포토 컬렉션’, ‘방람이네 사진관’, ‘2021학년도 페스타고사’, ‘룸 라이브’, ‘스테이지 클립’, ‘아미 만물상점’ 등 다양한 콘텐츠를 준비했다.

하이라이트는 팬 미팅이다. 13일부터 이틀간 온라인 팬미팅 ‘2021 BTS 머스터 소우주’를 연다. 30일 소속사 빅히트뮤직에 따르면 이들은 첫째 날은 전 세계 아미들과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고, 둘째 날은 ‘월드 투어 버전’으로 진행한다. ‘머스터’는 2014년부터 매년 진행해온 대규모 팬미팅으로, 2019년 이후 2년 만에 열린다. 지난해에는 온라인을 통한 ‘방에서 즐기는 방탄소년단 콘서트’(방방콘)으로 대신했다.

방탄소년단은 “올해 뜻 깊은 8주년이지만 많이 아쉽다”며 “‘페스타’라는, 아미들을 위한 거대한 이벤트가 있지만 오프라인으로 보여주지 못한다. 다양한 콘텐츠로 대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방탄소년단은 두 번째 영어 신곡 ‘버터’로 영국 오피셜 싱글 차트 톱 100에서 3위를 기록했다. 또 ‘버터’의 열기를 이어가기 위해 댄스뮤직으로 재해석한 ‘핫터’(Hotter)를 공개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연예뉴스 HOT 3

이승기 열애 선언, 팬들은 트럭 시위

가수 이승기(34)가 연기자 이다인(29)과 공개 연애를 선언했지만 팬들이 반발하고 있다. 최근 이승기의 일부 팬들이 그의 자택 앞에서 트럭 시위를 벌이며 두 사람의 만남을 반대했다. 이다인의 양부가 과거 주가 조작 사건에 휘말린 점이 이승기의 이미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팬들은 “이승기와는 전혀 관련 없는 사건으로 인해 비난받아야 하는 만남을 지지할 팬들은 없다”고 밝혔다.

H.O.T. 상표권자, 권리 침해 손배소 패소

그룹 H.O.T.의 원 상표권자가 공연기획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는 김경욱 전 SM엔터테인먼트 대표가 솔티노베이션을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금지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김 전 대표는 2018년 10월 H.O.T. 재결합 콘서트에서 솔티노베이션이 자신의 등록 상표와 동일·유사한 표장을 사용해 상표권 등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앞서 김 전 대표가 지닌 H.O.T. 로고 등 상표권 등록을 무효화했다.

6월 3일 유승준 비자 발급거부 첫 재판

가수 유승준(스티브 승준 유·45)에 대한 정부의 비자 발급 거부 관련 소송의 첫 재판이 6월3일 열린다. 30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유승준이 주LA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이날 진행한다. 앞서 유승준은 2002년 1월 공연 등 명목으로 출국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 병역 기피 논란을 모았다. 정부가 비자 발급을 거부하자 유승준은 소송을 내 지난해 3월 최종 이겼다. 하지만 정부가 비자 발급을 또다시 거부하면서 새롭게 소송을 제기했다.